

##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와 조선문학\* —이광수의 문학과 논설을 중심으로—

오 태 영\*\*

### 요약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 하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의 조건들이 재편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식민지 조선'을 관통하고 있었던 체제의 실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으로 촉발된 비상시는 제국-식민지 체제를 유지·존속해왔던 차별적 구조를 철폐하고 내지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선일체의 이념을 통해 아브젝트들로서의 식민지 조선인에게 거부되거나 배제된 상태가 아닌, 포섭되거나 통합된 상태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런가 하면 천황의 적자로서 전쟁에 나가 죽어야 할 책무를 부과 받았을 때, 이 아브젝트들은 기꺼이 그 책무를 받아들여 제국의 식민지인으로서 내쫓긴 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신민(=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광수는 전시총동원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이러한 내러티브들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 식민지인이라는 차별적 위상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를 제국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국-식민지 체제가 부여한 특권을 갖는 주체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타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발생시킨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이 무화되는 순간 제국과 식민

\* 이 글은 2017년 5월 20일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1회 한국현대소설학회 전국 학술대회 〈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 발표한 글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경기대학교 김경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익명의 심사위원들로부터 냉엄한 지적을 받았으나, 필자가 과묵한 탓에 해당 내용을 모두 수정·반영하지 못했다.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지의 경계는 사라지고, 제국-식민지 체제는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에게는 오직 전쟁에 나가 죽을 권리만 부여되었다. 이처럼 식민지 문학이 제국-식민지 체제의 질서와 문법을 되비추는 거울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20세기 전반 한국문학을 근대문학=민족문학이라는 관점이 아닌 '식민지 문학'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제국-식민지 체제, 전시총동원 체제, 조선문학, 민족문학, 식민지 문학, 이광수, 아브제시옹

목차

1.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이라는 관점
2. 전시총동원 체제와 식민지 문학/자의 동원
3. 내선일체의 이념과 서사적 과잉 전략
4. 식민지인의 제국 군인으로서 죽을 권리
5. 식민지 문학이라는 관점의 가능성

## 1.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이라는 관점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답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것은 문학에 관한 인식과 관념, 문학 개념의 형성 및 발전, 문학이라는 제도, 문학의 역사적 조건들에 대해 말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 근대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 역시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근대문학에 관한 인식과 관념, 근대문학 개념 형성 및 발전, 근대문학이라는 제도, 근대문학의 역사적 조건들에 대한 탐색 결과가 한국 근대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해진다. 그런데 리터러처(literature)의 역어로서 문학 개념에 동의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와 관련해 20세

기 초 이광수가 근대 서양 및 일본의 문학회론을 번역하는 통언어적 실천을 통해 문학을 본질적으로 심미화하고 민족문학의 이념적 원점을 제시한 것에 이견이 없다면, 육체적·감성적 인간의 자발적인 국민주체화는 미적인 것을 부르주아 민족국가에 대한 정치적 인준에 동원한 계몽주의 이후의 미학과 친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한 승인할 수 있다.<sup>1)</sup> 근대화 기획, 민족국가의 성립, 미학적 주체의 탄생 과정 속에서 이른바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을 위치시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근대문학을 민족문학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서양 근대문학을 하나의 준거점으로 해서 문학을 파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었고, 근대 이후 서양 근대문학의 전 지구적 확산 및 그것의 이형태(異形態) 들로서 비서양 지역에서의 근대문학의 발생 및 전개 과정을 염두에 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아프리카 문학과 중남미 문학, 그리고 아시아 문학은 언제나 유럽의 문화적 전통을 담지하고 있다고 여겨져 왔던 서양 근대문학의 자장 안에서 파악되었다. 물론 이는 근대 세계체제의 성립, 국민국가의 발흥, 민족 관념의 대두, 자아 개념의 확산 속에서 근대문학이 어떻게 성립하고 발전해갔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던 것이기도 하였다. 활자문화의 발달, 민족주의의 발흥, 근대적인 자아 관념 등이 근대적 의미에서 문학의 불가결한 조건으로 거론<sup>2)</sup>되었듯, 그러한 문학의 역사적 조건들을 선취한 서양 근대문학을 하나의 전범으로 삼아 한국 근대문학을 위치시키고 이해하는 것은 상식에 속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근대문학의 역사적 조건들이 쇠퇴하고, 소위 ‘근대문학의 종언’이 운위되자 근대문학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촉발되었다. 근대문학의 역사적 조건들이 붕괴했다는 진단이 근대문학

1) 황종연, 『문학이라는 역어』, 『탕아를 위한 비평』, 문학동네, 2012, 479면.

2) 황종연, 『문학의 묵시록 이후』, 위의 책, 14면.

자체의 종언으로 연결되었고, 때를 같이해 민족문학으로서 근대문학에 대한 인식과 개념, 그것들을 둘러싼 제도에 대해 다각도의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그것은 20세기 한국 사회의 정신사적 구조를 장악하고 있었던 민족 관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근대문학을 민족문학이라는 심급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갖는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모색으로 확장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민족/문학이라는 관념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다. 문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넘어 제국-식민지 체제 이후 탈식민-냉전 체제와 분단 체제를 거쳐 오고 있는 근대 한국에서 민족/문학에 대한 다채로운 비판적 연설이 발화되었지만, 민족/문학은 대체로 체제의 실정성(positivity) 강화라는 측면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결코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근대문학을 지탱하고 있었던 역사적 조건들이 그 힘을 상실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에 대한 신뢰는 비록 약화되었을망정 유지·존속되어왔던 셈이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탈민족주의, 포스트콜로니얼리즘,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 연구, 문화연구, 동아시아론 등 문학연구에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이 개진되면서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에 대한 비판이 다각도로 이루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근대문학을 민족문학의 자장 속에서 인식하고 파악하고 의미화하는 것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족문학으로서의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인식이 우세종을 점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20세기 전반 한국 근대문학은 어떤 식으로든 제국-식민지 체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 근대문학’을 ‘식민지 조선문학’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 근대문학이 그 발생 초기부터 제국-식민지 체제(regime)의 정치경제적·사회문

화적 조건들에 강하게 주박(呪縛)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서양 근대문학을 준거로 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민족문학으로서 한국 근대문학을 위치시키고 이해하는 데 있어 민족 상실이라는 제국-식민지 체제의 실정성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하다. 물론 역설적으로 상실된 민족에 대한 회복의 욕망이 민족문학으로서 한국 근대문학을 추동하는 핵심에 놓여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국-식민지 체제 내 발생하고 변화되어간 한국 근대문학을 민족문학으로서 근대문학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은 한국문학을 둘러싼 제국-식민지 체제의 실정성과 역사적 조건들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요컨대 근대 한국과 일본이 단일한 체제 속에 함께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차별적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제국적 질서를 유지·강화하여 식민지인들의 삶의 조건들을 문법화하는 하나의 상징체계로 작동했던 실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근대문학을 ‘식민지 조선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문학’으로서 한국 근대문학의 위상과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여겨지는 ‘식민지 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식민지 말은 근대 한국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하나의 ‘임계점’에 해당한다. 근대 이후 제국-식민지 체제로 재편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굴절과 변용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후 탈식민-냉전 체제로 다시금 재편되는 세계 질서의 변화 과정을 고찰할 수 있는 임계점으로서의 식민지 말<sup>3)</sup>은 근대의 끝에서 근대 이후를 모색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인 파시즘 체제의 강화와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 징후 속에

3) 오태영, 『오이디푸스의 눈 : 식민지 조선문학과 동아시아의 지리적 상상』, 소명출판, 2016, 16-17면.

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마련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었다. 물론 역사가 증언하듯, 결국 그러한 움직임이 전시총동원 체제 하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이데올로기로 회수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국 사회를 추동하던 근대성 자체에 대한 나름의 비판적 성찰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가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추동하고 있었던 근대성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조선문학=근대문학’이라는 등식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조선문학은 ‘현대=동양’이라는 새로운 세계사적 질서에 조응해 그 위상을 재구축해야 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문학자들은 제국의 문화적 권역 내에서 조선문학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담론적 실천을 수행했다. 당시 식민지 조선문학은 지방문학, 국민문학, 세계문학 사이의 다중적 역학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찾고 있었던 셈인데, 그것은 전시총동원 체제가 촉발한 지방, 국가, 지역,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감각의 결과이기도 하였다.<sup>4)</sup>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문학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위와 같은 움직임들은 대체로 전시총동원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는 길로 수렴되었고, 식민지 조선문학은 내지 일본문단에 통합되었다.

이런 점에서 기존 문학연구에서 식민지 말 조선문학을 이해하는데 있어 제국-식민지 체제에 대한 협력의 여부를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거칠게 정리하자면, 1980년대까지 ‘친일문학’과 ‘암흑기문학’이라는 레테르가 주로 식민지 말 조선문학을 서술하는 술어로 작동<sup>5)</sup>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거기에 더해 ‘협력/저항’

4) 위의 책, 116-118면.

5) 임종국이 『친일문학론』에서 식민지 말 문학단체 및 개별 작가의 활동과 작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가장 우수한 국민문학은 가장 우수한 매국문학이라는 공식을 제시한 이래 그러한 견해는 이후 남한 문학사 서술에서 지속되어왔는데, 송민호의 『일제 말 암흑기문학연구』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1990년대 초에 이르

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이나 그것이 착종된 상태로 당시 문학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sup>6)</sup>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암흑기나 공백기로 식민지 말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식민지와 후기식민지 사이의 사상적·인적 연쇄를 통해 식민지말로 소급되곤 하는 파시즘 비판, 대중을 조직하는 방식과 국민병제도, 전쟁에 수반되는 충성과 재화의 동원을 식민지말 총동원 체제로부터 연역하려는 국민국가 비판, 국가와 관료의 주도 속에 행해진 인간과 재화의 배치 및 제도의 구성을 개인과 사회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해체하려 한 국가이성 비판, 식민지와 후기식민지 사이의 물질·인적·제도적 연쇄를 전후 경제성장의 원천으로 보고 이를 통해 기왕의 부정적 근대화론을 분쇄하려는 (신)자유주의 등은 공히 ‘식민지(말)의 제도, 관념, 문화를 주요한 착점으로 삼아 왔다.’<sup>7)</sup>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민족 관념을 축으로 식민지 말 조선문학을 위치시키고 파악해온 것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콜로니얼 이론의 양가성 개념에 기초한 ‘분열된 주체’를 상정하고 이를 통해 식민지 말 ‘국민문학’의 성격을 고찰한 논의

기까지 식민지 말 문학은 민족문화 전통을 훼손한 기형적인 전시문학일 뿐이었다고 일축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과 송민호, 『일제 말 암흑기문학연구』, 새문사, 1991 참고.

- 6) 2000년대 이후 식민지 말 삶과 문학에 대해 기존 ‘암흑기’의 명명법으로부터 벗어나 논의를 전개한 것은 김재용의 『협력과 저항』이 대표적이다. 세계사적인 근대 몰락의 징후와 동양사적인 제국 일본의 파시즘 체제 강화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들이 자발적인 내적 논리를 만들어 제국주의 체제에 협력하거나 저항했다는 점을 논의한 그는 “친일문학의 성격을 제대로 규명내 내고 이에 입각하여 친일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를 구분”(김재용, 『협력과 저항—식민지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 45면.)하였다.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적 구도를 협력과 저항으로 대체한 그의 논의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광수, 장혁주, 유진오, 최재서를 각각 문화주의적 동화형, 혈통주의적 동화형, 속인주의적 혼재형, 속지주의적 혼재형 친일 협력으로 유형화해 제시하기도 하였다.(김재용, 『풍화와 기억—일제 말 친일 협력 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6.)
- 7) 황호덕, 『별레와 제국—식민지말 문학의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 새물결출판사, 2011, 600면.

는 협력과 저항의 도식을 넘어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모순, 불안과 동요의 지점에 주목하는 한편, 식민지 말 사회주의적 비전과 민족주의적 전망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의 식민주의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했던 문학/자의 의미를 되묻고 있다<sup>8)</sup>는 점에서 식민지 말 문학연구에 흥미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었다. 2000년대 첫 10년 동안 이러한 관점은 식민지 말 문학연구의 주류를 차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식민지 말 문학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것은 황호덕과 차승기이다. 황호덕은 식민지의 일상에 균열을 일으키는 식민지 말이라는 ‘극한상태’를 통해 근대 국가의 질서가 움직이는 원리와 거기에서 파생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라는 문제계를 제시하여 제국의 신화가 어떻게 식민지를 포섭/배제하는 동시에 식민지의 신화가 어떻게 제국의 신화를 초과하는 한편 스스로를 각인시켜왔는지 논의하였다.<sup>9)</sup> 또한, 차승기는 제국과 식민지가 함께 연루되어 있으면서도 차별적 구조 속에서 차이를 발생시킨 양상을 면밀하게 탐색하는 한편, 인간 욕망의 조건이자 형식으로서의 장치들이 황민화 과정에서 작동하면서 구성한 제국-식민지 체제의 실정성이 문학이라는 장치를 통해 강화되거나 해체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sup>10)</sup> 이들 논의는 식민지 말이라는 예외상태의 질서와 문법이 촉발한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비균질적 상호 침투와 연루—그리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한 장치들과 테크놀로지—에 주목해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의 균질성을 되묻고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해 제국-식민지 체제의

8)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도서출판 역락, 2006.

9) 황호덕, 앞의 책.

10)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 그린비, 2016.



문학, 특히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 하 식민지 조선문학을 민족 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이라는 자장 밖에서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다. 20세기 전반 제국-식민지 체제의 문법에 의해 사회 구조가 변동하고, 문화 생산의 동력이 마련되는 한편, 인간 삶의 조건들이 질서화되고 구조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식민지 조선'을 관통하고 있었던 체제의 실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0세기 전반 한국문학을 근대문학=민족문학이라는 관점이 아닌 '식민지 문학'으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 아래 고쿠고(국어=일본어)와 내지문단을 축으로 통합된 식민지 조선문학의 역할과 위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광수의 문학과 논설을 대상으로 논의의 전개하고자 한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식민지 말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지식인이자 문학자로 전시총동원 체제에 협력적인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문학의 역할과 위상 변동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문학작품을 창작하였다. 물론 이광수 외에도 최재서, 이석훈, 김사량 등 당시 활동했던 다양한 문학자의 작품과 논설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세계 체제의 변화에 대한 인식에 기초해 식민지 조선인의 전쟁 동원을 직접적으로 서사화한 창작 활동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글을 쓰고 문학적 활동을 전개한 이광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근대 초기 이래 민족문학으로서의 근대문학의 성립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광수가 식민지 말 조선문학의 위상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있는가를 감안하여, 비록 제한적이지만 이광수의 문학과 논설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세기 전반 한국문학을 식민지 문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전시총동원 체제와 식민지 문학/자의 동원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듬해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공포되면서 전시총동원 체제에 돌입했고, 이어 1940년 신체제 선포 이후 1941년 12월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확산되었던 식민지 말은 잘 알려진 것처럼, ‘전환기’(또는 전형기)로 인식되었다. 전환기라는 시대 인식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전 세계적인 파시즘 체제의 강화 및 자본주의의 몰락 징후 속에서 기존의 근대 세계 질서가 파탄났다는 진단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근대의 과탄을 수리한 후 근대 이후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담론적 실천이 수행되었다. 물론 근대 세계 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엄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근대의 끝에서 근대 이후를 모색한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의 담론장에서는 “근대와 탈근대, 식민과 탈식민의 욕망이 복잡하게 충돌”<sup>11)</sup>하고 있었다.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식민지 말은 전쟁이라는 세계사적 사건을 통해 근대 세계 체제의 질서와 가치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제국과 식민지의 담론장에서 다채로운 언설들이 쏟아지는 한편, 파시즘 체제 하 전쟁 수행을 위한 인간 개조와 일상의 재편이 강제되었으며, 그러한 비상시에 조응해 식민지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새롭게 발현하면서 또 다른 자기를 구축해가던 시기였다.

제국 일본에 의해 운용된 총동원 체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간 동안 정책적으로 준비된 것이었는데, 처음부터 동아시아의 식민지와 점령지를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는 대륙의 자원을 일본으로 운송하기 위한 교통 판로 제공, 쌀을 중심으로 한 식량 공급, 일본인 외 보충 노동력·병력의 충원,

11)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식민지 조선 담론장에서의 전통·세계·주체』, 푸른역사, 2009, 276면.

부족한 자연 자원의 공급 등이 요구되었다.<sup>12)</sup> 특히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과 대동아공영권 구축이라는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대륙진병참기지에서 제국진병참기지로 그 지정학적 위상이 부여<sup>13)</sup>되었고,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역할과 책무가 식민지 조선(인)에게 강제되었다. 1931년 만주사변 발발을 계기로 제국 일본의 중국 대륙에서의 전쟁 수행 과정 속에서 병참선에 놓였던 식민지 조선은 1937년 중일전쟁을 거치면서 대륙진병참기지의 위상을 부여받았고, 다시 1941년 아시아-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해 동남아시아 지역을 통합하는 제국진병참기지로 위치 지어졌던 것이다.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는 효율적·안정적으로 전쟁동원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인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실시해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 1938년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및 1940년의 ‘국민총력운동’이라는 두 개의 ‘국민동원’이 놓여 있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후 1937년 9월 일본 국내에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개시되었고, 그 후 ‘시국의 항구화’ 즉 중일전쟁의 장기화라는 상황을 수리하여 1938년 7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주도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었으며, 조선에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 개시되었다. 조선연맹 산하에는 각 지방 행정 단위 및 정·동·리에 연맹이 설치되었고, 정·동·리 연맹 아래에는 이웃 세대 10호 정도로 구성된 애국반이 조직되었다. 1939년 애국반의 가맹은 사실상 강제적이었고, 거의 전세대가 가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식민지 조선의 정신동원운동에

12) 庵澄由香, 『朝鮮における總動員體制の構造』, 和田春樹 外 編, 『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 第6巻: アジア太平洋戦争と『大東亞共榮圈』 1935-1945年』, 岩波書店, 2011, 240-244면.

13) “대동아공영권에서 조선의 경제적 지위는 북방권의 제국진병참기지로서 규정된 것인데, 그것은 종래 이해되어왔던 대륙진병참기지적 성질과는 다른 것이어서, 대동아전쟁과 남방권의 공영권 편입을 계기로 조선의 경제적 지위는 새로운 의의와 성격을 부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川合彰武, 『朝鮮工業の現政勢』, 人文社編輯部 編, 『大東亞戦争と半島』, 人文社, 1942, 86면.)

는 ‘내선일체(內鮮一體)’가 실시 목표로서 강압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1941년 10월에는 일본 국내의 ‘신체제운동’에 호응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총력운동이 개시되었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조직을 인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아래 각 지방 행정 단위의 부락연맹, 그리고 애국반이 다시 조직되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농촌진흥운동 또한 총력운동에 통합되었다. 한편, 제국 일본 및 조선총독부는 조선인의 참정권이나 결사의 권리를 부인해왔고, 그 결과 식민지 조선에서는 제도화된 정치의 장 형성이 억압되었다. 전시 하에서도 조선총독부는 동원의 대가로서 조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로 인해 조선총독부에서는 행정기구 외에는 조선인의 자발적인 전쟁 협력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수 없었다. ‘국민동원’이 행정 주도의 이른바 관제운동으로서 전개되었던 점에서 일본 국내와는 다른 식민지 조선의 특징이 있었다.<sup>14)</sup>

그런데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 식민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민족 모순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황국신민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불온한 식민지 조선인들의 충구가 자신들을 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고, 무엇보다 그것은 인간 개조로 귀결되었다. 1938년부터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 사무국에 국민사상의 통일, 국어 및 군사사상의 보급, 청소년 지도 등을 담당하는 연성부와 선전 계발, 인쇄물의 편집 발행, 황도문화의 지도 진흥, 문화 기구들의 정비 강화를 실행하는 선전부를 두어 ‘지(知)의 총동원 체제’를 맡았다. 신체제의 근간이 될 교육

14) 松本武祝, 『戰時期朝鮮における朝鮮人地方行政職員の「對日協力」』,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7 : 支配と暴力』, 岩波書店, 2006, 225-227면.

기관의 확장과 교원의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였는데, 학교·농촌·탄광·공장에서 생산력 향상과 노동력 육성을 위해 학교가 증설되고 사상·과학·기술교육이 보강되었다. 또한, 각종 학교에 국어·황국신민의 서사가 보급되는 것은 물론 노동과 체력을 연마하는 ‘학교노동보국대’, ‘조선학생애국연맹’ 등이 동원 조직되었다. 아울러 종교·언론·출판·문학·영화·연극·음악·미술·무용·체육 등 각 분야에서 ‘협회’, ‘보국회’, ‘동호회’ 등이 조직되었고, ‘국민문화건설’에 협력하기 위해 예술가 단체 연락 협의회가 결성되고, 대중을 향해 사상·선전활동이 이루어졌다. ‘낭독과 연극의 밤’, ‘지원병보급설전대’의 연설회, 지원병위문단의 보고, 국민연극경연대회, 애국가요대회, 반도총후미술전람회, 지방순회공연 등 이른바 국책문화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동원을 촉구했다.<sup>15)</sup>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은 전시총동원 체제가 요구하는 전쟁 수행의 과정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제한적·폐쇄적 위상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기를 구축해갈 수 있다는 욕망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욕망은 제국주의 국가 권력이 구축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증폭되었다. 전시총동원 체제는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 함께 연루되는 가운데 차별적 구조와 서로 다른 지위를 갖게 하는 문법을 보여준다. 단일한 체제 속 차별적 구조 아래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 놓이게 된 것인데, 동시에 그러한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고안되고 작동되었다. 이와 관련해 차승기는 제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지속적인 체제로 성립시키는 것이 일련의 장치들의 네트워크라고 상정한 뒤, 이 장치들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실정성 위에서 비로소 제국-식민지 체제가 존속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식민지 말의 전시총동원 체제가 제국-식민지 권력

15) 趙寬子, 『脱/植民地と知の制度—朝鮮半島における抵抗-動員-翼賛』,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 3 : 動員・抵抗・翼賛』, 岩波書店, 2006, 344-345면.

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을 포섭하고, 그들의 욕망의 조건이자 형식으로서 ‘치안’, ‘고쿠고’, ‘이름’(창씨개명), ‘전쟁’(징병 및 징용) 등의 장치들이 황민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러한 황민화의 장치들이 구성한 제국-식민지 체제의 실정성에 대해 ‘통제적 합리화’, ‘욕망의 내재화’, ‘가시성의 절대화’로 규정하였다.<sup>16)</sup>

총력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고도국방국가 건설을 기치로 내걸면서 제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식민지들의 정치경제적 위상이 재편되고, 대동아공영권 속에서 위계를 달리하고 있었지만 지정학적으로 통합된 것은 모두 통제적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 제국 일본이 동아시아 권역에서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오직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臣民)’으로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생명정치적 장으로 호명되었고,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일본인-되기의 욕망을 기획하고 발현하는 길만이 허락되었다. 또한, 모든 것들이 가시적인 영역으로 이끌려 권력의 시선 아래 포섭되고, 재편되어 의미 부여되었으며, 비가시적인 것들은 부재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가시적인 영역 밖은 상상될 수 없었던 가시성의 절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것들은 황민화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었던 ‘치안’, ‘고쿠고’, ‘이름’(창씨개명), ‘전쟁’(징병 및 징용)이라는 장치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sup>17)</sup>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의 조건들을 급속하게 재편하여가던 가운데 문학계 역시 전쟁 수행을 위한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이른바 식민지 조선 문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문예동원이

16)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 앞의 책, 260-263면.

17) 오테영, 『제국-식민지 체제의 구멍을 응시하는 눈—차승기의 『비상시의 문/법』에 기대어』, 『상허학보』 제49집, 상허학회, 2017, 506-511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것이다. 당시 식민지 조선 문학계에게 요구되었던 문예동원은 전쟁 수행을 위한 고도국방국가 건설에 문예가를 동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 수양’과 ‘대중동원’으로 대별되었다. 전자에 내지 성지순례, 현지 병영생활이나 근로봉사 참여, 지원병훈련소 견학 및 신사참배 등이 포함되었고, 후자에 시국적 작품의 발표와 지방 강연, 지방문화 현황 보고를 통한 문화정책 수립에의 기여 등이 포함되었다.<sup>18)</sup> 식민지 조선의 문학계에서는 조선총독부의 지원 아래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문학자와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들을 주축으로 각종 단체를 설립하여 문예 활동을 전개해나갔는데,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문단이 재편되었고 식민지 지방문학으로서의 조선문학의 위상에도 변동이 발생하였다.

한편, 중일전쟁 이후 내지 일본 문학계에서는 동아시아의 식민지 문학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 대륙 지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위 ‘외지(外地)’와 ‘외지문학’이 일본인 문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였고, 그것은 근대문학으로서의 일본문학이 침체기에 접어들어 그 침체된 상태를 타파하기 위해 외지문학으로부터 수혈을 받아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움직임이었다. 1935년 아쿠타가와상이 제정되고, 외지의 문학작품이 다수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식민지 조선문학과 관련해서는 잘 알려진 것처럼, 1939년과 1940년 『모던일본』의 조선판이 발간<sup>19)</sup>되거

18) 「文藝動員を語る」, 『國民文學』, 1942. 1. 104-105면.

19) 1939년 『모던일본』 10주년 기념 임시증간 ‘조선판’의 편집자는 “조선반도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대륙과 연결되는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조선에 대한 인식이 절대화되어, 식자는 물론 전국민의 애국적 관심이 팽배해지는 시점에서 간행되었다. 모던일본 조선판의 간행은 시국에 적합한 절호의 기획으로서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조선 명사들의 찬동, 전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국민운동의 하나로 표현된 감이 있다.”(모던일본사 지음, 윤소영·홍선영·김희정·박미경 옮김, 『편집후기』,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 완역 <모던일본>

나 1940년 『문예』에 조선문학특집이 마련된 것 등 조선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의 열기 속에서 소위 ‘조선 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물론 이 ‘조선 붐’은 식민지 조선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강했다.<sup>20)</sup> 때를 같이 하여 일본어로 창작되거나 번역된 조선문학이 내지문단에 활발하게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조선문학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내지문단으로 통합되어 갔다.

식민지 조선문학의 내지문단으로의 통합 과정 속에서 조선 문학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앞서 차승기의 논의를 다시 빌리자면, 그는 근대문학이라는 장치의 규범성을 의심하거나 그것이 지니고 있는 작위성을 폭로하는 실천의 지점들을 제국-식민지 문학 장의 변동에서 찾고 있었다. 물론 제국-식민지 문학 장의 변동은 문학 외부의 영역에 자리 잡고 있는 장치들에 의해 문학 장치가 폭력적으로 포섭되거나, ‘식민지 문학’이 ‘제국 문학’에 통합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는 식민지 말 전쟁이라는 장치에 포섭된 문학이 기술적 영역으로 이행해갔고, 그렇게 변형된 문학적 장치에 의해 산출된 주체를 ‘기술자-작가’라고 명명하는 한편, 고쿠고를 축으로 식민지 외지 문학으로서 내지의 제국 문학에 통합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산출된 주체를 ‘번역가-작가’라고 명명하였다. 전자는 반성적 주체와 상상적 연대의 주체를 생산해냈던 근대문학의 파탄을 수리하고, 그 자리에 전선기행이나 보고문학 등 ‘사

조선판 1939년, 도서출판 어문학사, 2007, 508면.)라고 밝히고 있다.

20) “군국 일본의 반동 지배층이 ‘팔굉일우(八紘一宇)’,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실현의 중요 방책으로 ‘내선일체화’, ‘황국신민화’라는 슬로건 하에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해 직접 보도·출판 기관을 장악하고 ‘조선 붐’을 만들어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선전·선동 공작에 일본의 저명한 작가나 학자, 문화인, 언론인, 예능인, 스포츠맨을 총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매국노나 글을 팔아 사는 자들을 필두로 하여 대대적으로 활용한 것이다.”(朴春日, 『增補近代日本文學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1985, 363면.)



실'에 대한 관찰의 시선을 대체한 결과였고, 후자는 일본어, 내지문단을 매개로 단일한 표상 세계에 진입한 결과였다. 다시 말해, “기술자-작가와 번역가-작가는 각각 근대 문학이라는 장치에 의해 구성된 반성적(내면적) 주체와 상상적 연대의 주체=국민적 주체가 식민지/제국 체제의 문학 장의 특이성 속에서 극단적으로 재구성된 결과”<sup>21)</sup>였던 것이다.

요컨대 전시총동원 체제가 전쟁 수행을 위한 식민지 조선인 황민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안된 ‘치안’, ‘고구고’, ‘이름’(창씨개명), ‘전쟁’(징병 및 징용)이라는 장치들의 네트워크가 제국-식민지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해갔고, 이에 따라 식민지 조선문학의 위상과 역할 역시 극심한 변동을 겪었다. 특히 문학이 전쟁에 포섭되고, 식민지 조선문학의 내지문단으로의 통합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들은 기술자-작가와 번역가-작가로서 자기의 주체성을 갱신하였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인 황민화 프로젝트가 결코 완결될 수 없는 것처럼, 식민지 조선문학이 일본문학으로 통합되거나, 조선인 문학자들의 주체성 재구축은 달성될 수 없는 것이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완결되거나 통합되거나 달성되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제국-식민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인, 조선문학이 사라진 자리에 제국 일본인, 일본문학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1937년 6월 동우회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치장과 병감에서 수형생활을 하다 같은 해 12월 병보석으로 석방된 뒤 이듬해 7월까지 병상에 있었던 이광수는 『문장』 1939년 9월호에 발표한 「육장기」에서 “이 성전(聖戰)에 참례하는 용사가되지 못하면 생명을가지고 나던 보람이없지 아니하오?”<sup>22)</sup>라고 쓴 뒤 본격적으로 전시총동원 체

21)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 앞의 책, 274면.

제에 협력적인 문학 활동을 전개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자기 수양’과 ‘대중 동원’의 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식민지 조선인 황민화 프로젝트를 위한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문학이라는 장치 속에 끌어들이는 것이었으며, 기술자·작가와 번역가·작가로 재편된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의 위상 변동 과정을 자기 재구축 과정으로 삼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식민지 말 이광수의 ‘친일문학’에 대해 폭넓게 검토한 이경훈은 그의 친일 사상이나 문학이 이전의 계몽주의적·실력양성론적 민족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개인적 층위에서 고아의식의 무의식적 발현 및 일종의 허위의식과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윤리적·종교적 합리화와 서구 중심의 세계사에 대한 자기기만적 문제의식으로써 관철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하여 이광수의 약육강식적인 근대 패러다임의 초극을 위한 당시 논의들이 시민사회를 기초로 한 정치적 자주독립 및 민족국가 성립이라는 과제와 동떨어진 채 종교적 낭만성의 추구로 나아갔음을 논의하였다.<sup>23)</sup>

전시총동원 체제 하 식민지 조선/인의 전쟁동원을 위한 문학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이광수 문학에서 당시 전쟁동원의 수사와 전략을 확인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다. 특히 식민지 조선인의 전쟁동원을 위한 문법과 장치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선일체 담론과 제국 일본의 군인 되기의 서사들은 식민지 조선인의 황민화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시 이광수 문학의 핵심에 놓인다. 물론 그의 문학에 나타난 황민화론은 ‘국민적 감정’에 의한 조선과 일본 양 민족 간의 동등한 결합의 문제, 즉 동등한 국민으로서의 권리 획득을 목표로 한 정치운동을 지향하고 있었다.<sup>24)</sup> 그리고 그러한 지향은 자연

22) 李光洙, 『齋莊記』, 『文章』, 1939. 9, 35면.

23)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 태학사, 1998, 356-357면.

24) 최주한, 『중일전쟁기 이광수의 황민화론이 놓인 세 위치』, 『서강인문논총』 제 47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79면.

과 인간계를 초월한 절대적 자각을 강조하는 불교적 진리의 보편성 안에 천황의 적자로서의 식민지 조선인의 정체성을 재기입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25)</sup> 하지만 그러한 문학적 수행의 과정이 완결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제 협력적인 문학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 점에서 이광수의, 나아가 식민지 조선문학의 딜레마가 있었다.

### 3. 내선일체의 이념과 서사적 과잉 전략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는 제국-식민지 체제를 유지·존속해왔던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철폐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선인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즉,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을 지배/피지배의 강고한 구도 속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 또한 일본인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야 했다. 제국-식민지의 단일한 체제 속에서 차별이 해소되어 일본인과 조선인 모두 전쟁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해야만 했던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피지배 민족으로서 식민지 조선인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일본으로의 동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드리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제시된 것이 제국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의 동화 이데올로기인 ‘내선일체’의 이념이다. 내지와 조선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선일체론이 식민지 조선의 통치 이념으로 본격적으로 개진된 것은 1936년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하면서부터였다. 이후 내선일체론은 중일전쟁이 발

25) 이에 대해서는 최주한, 『친일협력 시기 이광수의 불교적 사유의 구조와 의미』, 『어문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원, 2013, 227-302면 참고.

말하면서 대륙전진병참기지로 재편된 식민지 조선의 위상과 조선인의 전쟁 동원이라는 실질적 목적 아래 수행된 정책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는데,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는 내선 간 차별의 철폐라는 일종의 환상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광수가 이해하고 있었던 내선일체는 무엇이었던가? 그는 “朝鮮人은 그 民族感情과 傳統의 發展의 解消를 斷行해야 할 것이다. 이 發展의 解消를 가르쳐서 內鮮一體라고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sup>26)</sup>라고 밝혔는데, 결국 그에게 내선일체는 식민지 ‘조선인의 황민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는 『동포에게 보낸다』에서 보다 명징하게 드러난다. 1940년 3월 신체제 선포 직후에 씌어진 이 글은 그대인 일본인에게 보내는 나 반도인의 편지글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대와 나는 운명공동체로서 천황의 적자이자 일본 제국의 신민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한일병합 이후 30여 년이 경과해오면서도 느슨한 결속의 상태에 놓여 있어 “참으로 서로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동정하여 이끌어 세워 보다 힘센 문화의 한층 높은 일본을 올려 세”<sup>27)</sup>워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이는 무엇보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추진되고 있었던 대동아 건설이 내선일체에 기초한다는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의 말에 힘입은 바 크다. 전시총동원 체제가 대동아 건설의 기치를 내걸면서 그 핵심에 내선일체가 놓여야 한다는 식민통치 권력의 권위에 기대어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인의 차별적 지위를 해소해 제국 일본인의 그것과 동등하게 위치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는 먼저 참회가 전제된다. 해서 이광수는 유럽의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에 근거하여 제국 일본의 식민

26) 이광수, 『心的 新體制와 朝鮮文化의 進路』,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112면. 초출은 『매일신보』, 1940. 9. 4.-12.

27) 이광수, 『동포에게 보낸다』,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 도서출판 역락, 2007, 155면.

지 조선에 대한 정책을 오인하고 비판했던 자신을 참회한다. 그러면서 뒤이어 “나를 식민지 토인으로서가 아니라 폐하의 적자로서, 국민의 평등한 일원으로서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조국으로서 그리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sup>28)</sup> 요청한다. 동시에 내지의 일본인이 조선인은 문화 수준이 낮고, 언어와 관습, 사상이 달라 쉽게 자신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일소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요구한다. 나아가 사랑, 이해, 존경으로 만날 것을 역설하면서 “때 묻은 내 이불을 펴 비좁은 온돌방에서 나와 베개를 나란히 하여 자면서 은밀히 얘기한다면 어떨까.”<sup>29)</sup>라며 내선일체의 이념 그대로 마치 육체적으로 ‘일체화(一體化)’된 상태를 상정하기에 이른다. 참회와 반성→기회 요청→인식 개선 요구→합일된 상태의 지향이라는 내러티브를 갖는 『동포에게 고한다』에서의 이광수의 발화는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제한적·폐쇄적 위상을 이제 전시총동원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는 장치들, 특히 내선일체의 이념과 정책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상상 속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이처럼 이광수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은 천황의 적자이므로, 일본 측에서 내선일체를 받아들이는 데 조선인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으며, 그저 스스로 황민화해가면 된다고 말한다.<sup>30)</sup> 또한 그는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몇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일본인과 조선인이 혼연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 사이의 친밀한 접촉과 함께 문화 교류가 필요하고, 문학이 문화 교류의 일익

28) 위의 책, 158면.

29) 위의 책, 170면.

30) 이광수, 『내선일체수상록』, 이경훈 편역, 앞의 책, 244-253면. 초출은 『내선일체수상록』, 중앙협화회, 1941.

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내지의 문학자에게 조선에 대해 참된 인식을 주거나 조선인 문학자에게 내지인에 대한 좋은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문학을 통해 내지 일본인 문학자와 접촉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sup>31)</sup> 즉 문학은 문화 교류와 문학자 접촉을 통해 내선일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광수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여기에서는 전시총동원 체제기 제국 일본의 전쟁에 동원되어야 할 조선인이 누구였던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내선일체의 이념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의 황민화 과정을 서사화한 이광수의 문학 작품에 주목해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앞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내선일체를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광수의 인식이 드러난 대표적인 작품이 『녹기』 1940년 3월부터 7월까지 연재된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이다. 이광수는 이 소설의 창작 의도를 연재 서두의 저자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야마토와 고구려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힘으로라든가, 또는 싫어하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만나 서로 사랑하며 융합된 하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경우를 그리고자 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의도입니다. …(중략)… 이 작은, 변변치 않은 이야기가 내선일체의 대업에 티끌만한 공헌이라도 될 수 있다면, 나의 바람은 이루어진 것입니다.”<sup>32)</sup> 즉,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마음으로 융합된 상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소설의 집필 의도인 것이다. 그런 만큼 이 소설은 전시총동원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는 내선일체의 내러티브를 충실하게 보여준다.

내선일체 이념을 서사화하고 있는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31) 이광수, 『內鮮一體와 國民文學』, 위의 책, 72-74면. 초출은 『朝鮮』, 1940. 3.  
32) 李光洙, 『心相觸れてこそ(一)』, 『綠旗』, 1940. 3, 74-75면.

서사는 이광수가 내선일체를 위한 문학의 역할에서 피력한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접촉과 교류, 그리고 상호 인식과 이해, 나아가 사랑이라는 감정의 교환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의 서두에 제시된 재조일본인 남매가 북한산 등반 중 당한 조난 사고와 그들을 구해주고 보살펴준 조선인 남매의 행위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서로 만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사의 첫 부분에서는 재조일본인 히가시 다케오(東武雄)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경성제대 법학부에 재학 중인 그는 여타 재조일본인들처럼 조선인들과 거의 교제가 없었고, 조선인 학생들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는 한편, 그들을 ‘하등한 노예’ 보듯이 바라보면서 비하하고 있었던 자이다. 그의 그러한 태도는 한편으로 일본군 고급장교인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조선인은 열등하다고 말했던 것을 듣고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조난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조선인 김충식(金忠植)의 집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의 여동생인 후미에(文江)가 조선옷을 입고 있는 것에 이질감을 느끼는 한편, 자신의 몸에 조선옷이 입혀진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김충식의 구제와 치료,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 김석란(金石蘭)의 병간호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자신들과 입는 옷에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즉, 열등한 존재로서 조선인에 대한 기존의 인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동시에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sup>33)</sup> 이처럼 조난과 구제의 과정 속에서 일본인인 히가시 다케오는 조선인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게 그들을 인식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소설이 내선일체를 서사화하고 있다는

33) 위의 글, 84면.

점에서 제국 일본인 남성의 시선에 식민지 조선인 여성이 포획되어 순수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 또한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이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서사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접촉과 교류를 통한 인식의 전환, 나아가 감정의 교환을 통해 내선일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재조일본인과 조선인 청년들의 접촉과 교류는 이어져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해하기는 과정이 서사를 추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히가시 다케오 남매가 다시금 김충식의 집에 방문해 조선인들과 나눈 대화가 주목된다. 히가시 다케오는 조선옷을 입은 여동생의 모습을 내세워 일본인과 조선인이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데,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낙인찍힌 김충식의 아버지 김영준(金永準)은 히가시 일가와 민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 사이의 정과 의를 통해 교체하고 있을 뿐이라고 조심스럽게 답한다. 한일병합 이후 해외로 망명하였다 만주사변 직후 길림에서 체포되어 10년 동안 수형생활을 하다 가출옥 상태인 김영준은 아시아 민족들 중 일본이 영도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조선 민족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조선이 일본 영토로서,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신민으로서 살아갈 운명이라는 것을 수긍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민족 독립에 대한 의리와 식민지인으로서 조선인이 천대 받는 것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일본의 조선 통치에 반대하고 있는 인물로, 미나미 지로 조선총독의 내선일체론을 정치가의 수사 정도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히가시 다케오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다르지 않다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불평등한 차별적 상황을 은연중에 내비친 것이다. 그러자 흥미롭게도 조선인 불령선인 김영준의 말에 히가시 다케오는 자기비판과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우리들은 더욱 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그것은 일본제국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조선을 위해서도, 또한 동양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단 말이야. 우리들이 나뉘었다. 우리들 일본인 전체가 나뉘었다. 사과하네, 정말로 사과하네. 우리들 일본인은 조선 동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부족했었다. 폐하의 대어심(大御心)을 알지 못했었다네. 나는 자백하네. 하지만 일본인은 본성이 나쁘지는 않다네. 마음은 지극히 단순하고 쉽게 감격하는 국민이다. 단지 이제까지 조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네. 우리 집 아버지의 조선관은 아예 잘못된 것이네.<sup>34)</sup>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조선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부족했음을 자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이 일본인은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가 되자고 역설하면서 청년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한다. 이에 김충식은 그의 말의 의미가 확실하지 않지만, 호의는 느끼면서도 식민지 조선인 청년들은 내선일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자기 자신부터 그것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자 히가시 다케오는 다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 즉 정(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해보다는 사랑이라네. 진실로 동포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네. 악마를 이해할 수도 있으니까 말야.”<sup>35)</sup>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차별과 멸시의 대상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일본인과 조선인이 한 개체로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 인간이라는 점에서의 상호 간의 정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랑은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민족적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념이 된다. 그런데 이때 주목되는 것은 접촉과 교류를 통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진정 마음이 만나야말로」 서사에서 일본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발화, 즉 참회와

34) 李光洙, 「心相觸れてこそ(二)」, 『綠旗』, 1940. 4, 99면.

35) 위의 글, 41면.

반성의 발화를 하게 한 데 있다. 일본군 집안의 재조일본인인 히가시 다케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시선을 가지고 있던 그는 어느새 조선인보다 더 조선인의 입장에서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에서 내선일체의 이념을 말하는 자들이 대체로 이광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에 동의할 수 있다면, 일본인 히가시 다케오의 자기 성찰의 목소리는 피식민자의 차별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조선인의 목소리를 대변한 셈이다. 그런 점에서 전시총동원 체제가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를 해소하고 제국의 충직한 신민으로서 거듭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 여전히 엄존하고 있었던 차별적 위계 구조에 대해 이광수는 내선일체의 내러티브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을 통해 응수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멸시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 스스로 자신의 그러한 태도와 시선을 참회하게 하는 것은 내선일체의 이념을 전유하여 식민자에게 되돌린 것이자, 내선일체의 문법을 과도하게 받아들여 제국-식민지 체제의 차별적 구조를 변형시키고자 한 과잉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선일체는 결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일본인 입장에서 내선일체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동화의 이념이자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 소설에서 히가시 집안의 어머니인 기쿠코(菊子)가 자식들이 조선인과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는 한편, 김씨 남매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녀는 정혼된 상태인 자신의 자녀들이 혹시나 조선인과 애정 관계에 놓일까 걱정하며, 조선인들과의 연애와 결혼을 '가문의 수치'라고까지 여기고 있다. 식민지 말 내선일체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내선결혼이 정책적으로 장려되고 있었고, 1942년 말 조선 거주 내선결혼 부부가 2,615쌍으로 늘어난 상황과는 대비적이다. 물론 전시총동원 체제가 내선결혼을 장려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는 문화적으로 일본인화 될 다음 세대까지는 실제 통혼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1944년 3월 일본 거주 내선결혼 부부가 10,700쌍으로 늘어날 정도로 일본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일본인이라는 국민의식의 체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본의 언어와 풍속에 빠르게 적응해갔고, 그 결과 일본 정부가 우려할 만큼 통혼도 늘어났다.<sup>36)</sup>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정책 장려는 이제 순혈주의에 기반한 일본인에게는 자신들이 오염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셈이다. 내선일체의 이념은 식민지 조선인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동화 이데올로기로서만 작동해야지, 실제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를 무화시키는 동화가 달성되어서는 곤란한 것이었다.

이러한 내선일체의 불가능성은 『그들의 사랑』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조선인 고학생 이원구를 가정교사로 들여 함께 생활하면서 조선인에 대한 재조일본인 상류층 집안사람들의 인식 전환의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는 이 소설은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와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내선일체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원구와 함께 경성제대에 재학 중인 일본인 니시모토 다다시가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자네와 함께 지나보려니, 자네는 우리들과 조금도 다르잖은줄 알았네.”<sup>37)</sup>라고 고백하거나, 그의 아버지인 경성제대 교수 니시모토 박사가 조선인은 어떻게 해도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고 멸시하다가 이원구의 성실함에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 서사의 전개가

36) 이정선, 『동화와 배제—일체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역사비평사, 2017, 350면.

37) 香山光郎, 『그들의 사랑』, 『新時代』, 1941. 2, 271-272면.

내선일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결국 식민지 조선인 이원구는 재조일본인 상류층 집안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가 니시모토 집안의 차녀 미찌코에게 연모의 감정을 갖게 되자 모욕을 당하고 쫓겨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일정 부분 개선한 것과 그를 자신들과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하여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원구는 니시모토 다다시가 자신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인 되기의 ‘실험’ 대상이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조선인의 일본인 되기, 그 실험의 과정은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인 작가 이광수의 욕망을 강화시켜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이광수는 전시총동원 체제의 질서와 문법에 기대어 조선인의 지위를 격상시켜 일본인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싶어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일본인으로 하여금 조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되돌아보게 하고, 조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서사화하는 것을 통해 조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전환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지 일본인과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생활하고 있던, 그래서 상호 간의 접촉과 교류가 상대적으로 가능한 재조일본인에게 나름의 역할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들의 사랑』에서 경성제대 예과 화학교수인 모리다 다케시가 경성제대 재학 중인 재조일본인 학생들을 향해 “조선동포를 이끌어서 천황의 충성된 신민이 되게하는 일을 할 자가 누구냐, 하면 그것은 곧 그대들이란 말이다. 조선에 와 있는 내지인들이란 말이다.”<sup>38)</sup>라고 역설하고 있었던 것은, 재조일본인의 재조일본인을 향한 발화라기보다는 식민지 조선인 이광수의 재조일본인을 향한 발화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38) 李光洙, 『그들의 사랑』, 『新時代』, 1941. 1, 155면.

물론 그러한 상상은 환상에 다름 아니다.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의 접촉과 교제, 상호 이해와 감정의 교환은 대등한 관계 속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비록 전시총동원의 정책적·이념적 근거가 단일한 제국-식민지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시켜나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국/식민지, 일본인/조선인, 식민자/피식민지의 차별적 구조는 엄존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내선일체 이념을 통해 황국신민화를 달성한다고 해서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 조선인에게 일본인으로서 살아갈 자격은 애초에 봉쇄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광수는 내선일체의 이념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제국 일본인으로서의 동화를 꿈꾸고 있었다. 이는 이광수의 의도와 달리 제국-식민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질서와 문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체제의 실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에 의해서 지속되고 그 가운데 식민지 조선인의 욕망을 달성 가능한 것처럼 증폭되지만, 애초에 식민지의 경계를 넘어선 조선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광수의 문학이 내선일체의 이념에 기초한 전시총동원 체제의 질서와 문법을 적극적으로 서사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동화에의 욕망은 달성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 4. 식민지인의 제국 군인으로서 죽을 권리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의 조건들을 급속하게 재편하는 한편, 오직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으로서만 존재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생명정치의 장으로 호명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개조 프로젝트를 실행해간다고 했을 때, 그때 인간은 전쟁 수행의 기계로서의 ‘군인’으로서 위치 지어진다. 각각 1937년과 1939년에 발발한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근대 세계 체제의 질서와 문법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건으로서, 인간의 존재 방식을 파시즘 체제 속으로 포섭해 규정하였다. 식민지 조선인들 또한 전 세계적인 파시즘 체제의 강화 속에서 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제국주의적 침략 과정에 포섭되어 다양한 역할과 책무를 부여받았는데, 대체로 그것은 전쟁 수행을 위한 군인으로서의 역할로 점철되었다. 물론 이때 전쟁은 살육의 장이 아닌 새로운 세계사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성전(聖戰)으로 선전되었고, 동아시아 제 민족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공존공영(共存共榮)할 수 있는 대동아공영권 구축을 위한 핵심적인 방편이라고 의미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전쟁으로 인한 죽음에의 공포는 새로운 세계 건설이라는 역사적 비전 속에서 숭고한 것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39)</sup>

그렇다면 이광수는 이러한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특히 전시총동원 체제를 추동시킨 중일전쟁에 대해 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이 『신시대』 1941년 7월호에 발표된 「사변과 조선」이다. 이 글에서 이광수는 중일전쟁이 “世界の 歴史에 一新紀元을 劃할만한 大事件”<sup>40)</sup>이라면서 그것이 조선인에게 끼친 영향을 ‘신생(新生)’, ‘재생발(再生發)’ 등의

39) 이와 관련해 제국 일본은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쟁 영웅, 군신을 창출해왔는데, 식민지 말 조선인 특공대로 대표되는 제국 일본과 천황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전쟁 영웅, 군신은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의 전의를 고취시키고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하는 데 동원되었다. 특히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 각종 미디어에서는 레이테만 전투에서 가미가제 특별공격대로 전사한 마쓰이 히데오(인재웅)를 군신으로 현창한 이래 식민지 조선인 전사자를 군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지속하였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의 죽음은 숭고한 것이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 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 37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193-217면 참고.

40) 香山光郎, 「事變과 朝鮮 : 國民意識의 昂揚과 地位 向上」, 『新時代』, 1941. 7. 24면.

용어로 규정하면서 조선인들이 국민의식을 각성하는 한편 국민으로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중일전쟁 개전 이후 지원병제도가 생겨 식민지 조선인이 황군에 편입되었고,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교육의 차별이 철폐되었으며, 창씨제도 역시 실시되어 조선인의 90%에 달하는 사람들이 창씨를 하는 등 다양한 국민총동원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물론 이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했던 제도들이 철폐되고, 이를 통해 차별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자신의 욕망에 기대어 발화한 것이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식민지 조선인을 새롭게 존재하게 하거나, 다시 살아가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된다. 해서 이광수가 이 글의 말미에서 “朝鮮人은 皇民의 意識에 깨었고 皇道宣揚의 大使命에 自負를 가지게 되었다. 大東亞共榮圈 建設의 勤勞奉仕者요 兵士인 自覺을 가지게되었다.”<sup>41)</sup>라고 했을 때, 조선인이 ‘신생’하거나 ‘재생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군인으로서 전쟁에 나가 천황을 위해 싸우다 죽는 것 이외에는 없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되는 데에는 복잡다기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신시대』 1941년 9월호부터 1942년 6월호까지 연재된 이광수의 『그들의 노래』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 소설은 식민지 조선인 청년이 제국 일본의 군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쇠락한 양반 가문의 가난한 농촌 청년 마키노 요시오(牧野義雄)는 아버지의 병구완과 집안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지원병훈련소 입소 전 구장의 딸과 혼인한다. 이후 그는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지원병훈련소에 입소하여 군대식 교육과 훈련을 받고 집안 걱정을 떨치고 제국 일본의 충직한 군인으로 성장해간다. 그는

41) 위의 글, 27면.

“생명이 생명의 목적이 아니라, 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 있는 생명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은 누구나 다 제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제 임무를 다하다가 죽는 것이니, 여기서 사람의 할 일은 다한 것이다.”<sup>42)</sup>라며 군인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한다. 즉, 자신의 생명이 군인으로서 전장에 나가 싸우다 죽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 달 동안의 훈련을 마치고 입영 전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죽고 집안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부정한 행위로 다른 남성의 아이를 가지게 된 상황에 고통스러워한다. 제국 일본의 군인으로서 전장에 나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기를 자처하고 있는 그이지만, 집안의 경제적 궁핍과 아내의 부정 등으로 인해 번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천황의 적자로서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된다고 해서 식민지 조선인이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문제들로부터 모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인-되기의 과정을 수행하면서 신체를 개조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 일본군으로 자기를 갱신해간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동원 이전의 자기를 완전히 탈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봄의 노래』에서 마키노 요시오와 함께 지원병훈련소에 입소한 가네무라(金村)는 입소 사일 전 결혼한 아내가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자로, 훈련에 몰두하지 못하다 결국 탈주를 시도한다. 물론 마키노 요시오에게 탈주 행각이 발각되어 붙잡히고, 그것을 계기로 그 역시 충직한 군인으로 성장해가지만, 전시총동원 체제의 문법과 질서가 개인의 사적 욕망을 초월해 오로지 군인으로서만 존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되는 것을 통해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제한적·폐쇄적 위상을 극복하고 일본인으로서 또 다른 자기를 구

42) 香山光郎, 『봄의 노래』, 『新時代』, 1942. 4, 156면.



축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동원 이전의 자신들의 삶과 쉽게 절연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되고자 했던 데에는 단순히 제국 일본의 황민화 전략이나 전쟁 동원의 논리로 회수되지 않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욕망의 지점들이 산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광수의 입장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되는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을지 모른다. 즉,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서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연출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야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 측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된 식민지 조선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살펴본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 말로』 서사의 중반 이후 재조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청년들이 모두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전개되어 자못 흥미롭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소설은 일본인과 조선인 상호 간의 사랑과 정의 교환을 통한 내선일체의 이념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추동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결국 제국 일본의 전쟁 수행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이념으로 내선일체가 제시된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만, 이 소설에서 내선일체의 완성이 제국 일본의 충직한 군인 되기에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히가시 다케오가 전선으로 출정하자 여동생 석란과 함께 그를 전송하고 조선신궁에 참배한 김충식은 군의로 출정할 것을 결심한 뒤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전선으로 향한다. 또한, 석란과 후미에 역시 뒤이어 특별지원 간호부로 지원하여 후방에서 김충식과 해후한다. 이후 전장에서 부상당한 히가시 다케오가 후송되어 김충식에게 치료를 받지만 실명

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선무관이 되어 석란과 함께 중국 피난민으로 변장 후 중국군 진영에 들어가 공작 활동을 펼치다 적군에게 잡힌다. 연재가 중단되어 여기에서 그들의 행적은 끝나지만, 가파르게 전개되는 서사 속에서 히가시 다케오, 후미에, 김충식, 김석란 등 네 명의 청년들은 제국 일본의 군인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군의관, 간호부, 선무관, 군속 등 각자 수행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제국 일본의 '군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자면, 정의 교환, 사랑에 기초한 내선일체는 결국 군인이 되기 위한 길에 다름 아니다. 바꿔 말해, 내선일체의 이념은 군인으로서의 전쟁 수행의 과정 속에서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김석란이 앞이 보이지 않는 히가시 다케오의 눈이 되어 중국군 진영으로 떠나기 전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와 형식적이거나 결혼을 한 것은 죽음을 앞둔 남녀가 사랑을 확인하는 숭고한 행위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에 기초한 사회적 계약으로서의 결혼은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 그리하여 그들의 결합은 결국 제국 일본의 군인으로서 함께 죽는 데 있다는 점을 드러낼 뿐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여기에서 일본인과 조선인,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무화된다. 아니 초월된다. 그들은 그저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으로서 전쟁을 수행하다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뿐이다.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에서 김충식과 히가시 후미에, 히가시 다케오와 김석란 사이의 지극히 내밀한 연애의 감정이 국가에 대한 충성 속에서 봉합되고 있는 것은 그런 점에서 내선일체의 불가능성을 증거한다. 내선일체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 교환은 개인의 사적 욕망의 발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시총동원 체제 하 개인의 욕망은 군인이 되어 죽는 것으로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인과 동등한 자격을 갖기 위해서 의무교육과 징병제 실시, 나아가 참정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참정권 획득을 위해 조선인들에게 제국 일본의 군인으로 참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인들에게는 병역의 의무와 참정권을 교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sup>43)</sup> 하지만 앞서 살펴본 소설을 비롯해 그의 무수한 문학이 증거하는 바 전시총동원 체제는 식민지 조선인들을 오직 '군인'으로서만 존재하게 했다. 그런데 군인이 된다는 것은 국민의 자격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의 자격은 오직 죽음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허상이다. 산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권리, 오직 죽음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전시총동원 체제가 식민지 조선인을 천황의 적자로 만들어 황국의 신민으로서 천황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던 것은 조선인에게 일본인의 자격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 죽기를 강요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은 오직 죽음으로써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던 셈인데, 이광수는 이 죽음이 식민지 조선인의 지위를 격상시키거나 조선인의 차별적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인이 징병의 대상이 되는 순간 제국 일본의 국민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부과되는 순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겼던 이광수는 비국민의 상태에 고착화되어 있던 식민지 조선인의 국민화(=신민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전쟁이라는 장치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장치는 죽어야만 일본인이 될 수 있는 역설적 상황만을 식민지 조선인에게 허락했다.

43) 이에 대해서는 배개화, 「참정권 획득과 감성 정치-일제 말 이광수의 친일 협력의 목적과 방법」,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293-324면 참고.

이와 관련해 이광수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 『신태양』 1943년 11월호에 발표된 「군인이 될 수 있다」이다. 1942년 5월 각 의결정에 의해 1944년부터 식민지 조선에서도 징병제가 실시된다고 공포된 것에 호응하여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소품은 징병제 실시를 계기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차별이 철폐될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될 권리를 강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가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말에 낙담하던 중 패혈증에 걸려 죽어가면서까지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없냐고 아버지인 김(金)에게 묻고, 다시 태어나면 조선인은 군인이 될 수 있냐고 재차 묻는 상황은 징병제 실시 공포를 통해 이제 조선인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환희와 감격으로 대체된다. 즉, 조선인 어린 아이가 죽어가면서까지 일본군이 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한편, 징병제 실시 공포가 조선인의 그러한 바람에 응답한 결과라고 이 소품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장난감 군도 칼자루를 움켜쥔 채 자고 있는 두 사람의 적자(赤子)—폐하의 적자이지요! 그 두 아이들로부터 병사가 될 권리를 빼앗을 자 도대체 누구냐, 만일 그런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일본의 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티없는 적자들에게 하나라도, 먼지 만큼이라도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모욕을 느끼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위에 계신 한 분께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sup>44)</sup>

세간에 민족주의자로 알려져 있던 김이 조선인 징병론을 주장한 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군 장교는 그의 집을 방문해 김의 진

44) 이광수, 「군인이 될 수 있다(兵になれる)」, 이경훈 편역,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 :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373면.

의를 파악하고자 어떤 근거로 징병을 원하느냐고 묻는데, 그 일본군 장교의 질문에 김은 장난감 군모를 쓰고, 군도를 쥔 채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가리킨다. 이에 일본군 장교는 자신의 의심을 거두면서 김의 마음이 조선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이자 ‘대어심’에 이른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것인데,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될 권리를 빼앗는 자는 일본의 적이라면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조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천황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까지 강변한다. 이는 전시총동원 체제기 전쟁 수행의 주체인 제국 일본의 신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식민지 조선인의 입장을 일본군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이광수는 “健全한 帝國臣民이 아니고는 陸海軍 將兵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朝鮮人을 陸海軍 將兵으로 徵用하신다는 것은 朝鮮人을 完全한 帝國臣民으로 信賴하신다는 大御心の 表示시다.”라고 식민지 조선의 징병제 실시 공포에 대한 감격을 드러낸 바 있는데, 그러한 감격 속에서 그는 “兵役은 義務이지마는 特權이다.”고 강조한다.<sup>45)</sup> 즉, 그는 조선인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동원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한편, 그 논리 속에서 조선인의 권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식민지인으로서의 하위의 열등한 위상을 탈각하기 위한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도 한다. 하지만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인이 자신들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은 제국-식민지 체제 내 지배/피지배, 식민자/피식민자의 위계화된 차별적 구조를 와해시키는 것이자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해서 식민지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들과 같은 권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45) 이광수, 『兵制의 感激과 用意』,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앞의 책, 395면. 초출은 『매일신보』, 1943. 7. 28-31.

부인해야만 했던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 식민지 조선인은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일 뿐, 제국 일본/인으로 동화되어서는 곤란한 것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광수는 일본군의 입을 통해 제국의 군인이 되고자 하는 식민지 조선인의 권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시총동원 체제기 전쟁 수행의 주체로서 위치 지어진 '천황의 적자'라는 논리를 전유해 조선인의 차별적 지위를 벗어나고자 한 전략적 서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광수가 전시총동원 체제의 문법과 질서가 식민지 조선인에게 충직한 황군이 되라고 요구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 기꺼이 천황의 적자이자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되려고 했던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때의 권리는 산 자의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것이었다. 전쟁 수행의 과정을 통해 죽어야만 비로소 획득될 수 있는 권리,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군인으로 죽을 권리를 말하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이광수는 제국 일본의 군인이 되어 죽은 식민지 조선인들의 권리를 살아남은 조선인들에게 전이시키고자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천황의 전개 과정 속에서 패색이 짙어져갈수록 제국 일본은 보다 많은 식민지인들의 죽어야 할 책무를 요구했지, 살아남은 자들에게 죽은 자들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 죽어야 하는 책무와 죽음을 통해 획득되는 권리 사이에 놓인 식민지 조선인에게 책무가 요구되었지,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무이든, 권력이든, 결국 그것은 오로지 죽은 자만의 것이다. 전시총동원 체제기 생명정치의 장 속에서 작동한 포섭과 배제의 역학 구도는 식민지 조선인으로 하여금 제한적·폐쇄적·차별적 위상 극복의 욕망을 펼쳐 보일 수 있게 문법화 되었지만, 그때 욕망이 죽음을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데에 기실 처음부터 그것은 봉쇄되어 있었던 것이다.

## 5. 식민지 문학이라는 관점의 가능성

전시총동원 체제 하 전쟁 수행을 위한 동원 과정 속에서 식민지 조선인들은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이 되어 전쟁에 나가 기꺼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식민지 조선인이 천황의 적자이자 제국의 신민이 될 수 있는 길을 확장한 전시총동원 체제는 다른 측면에서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 사이의 경계를 약화시키거나 국민으로의 통합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었다. 비록 차별적 구조가 엄존하고 있었지만, 제국과 식민지가 단일한 체제 속에서 연루되었던 식민지 말의 전시 상태는 이전까지의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를 구획지었던 문법을 무화시킬 수도 있었던 ‘예외상태’였다. 따라서 제국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전쟁 동원을 위해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화 될 것을 주창하고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인)은 언제나 그 자체로 남아 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제국 일본(인)이 주체의 자리를 점하기 위해서는 타자로서의 식민지 조선(인)은 그 대상으로 위치 지어져야만 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순의 상태는 제국-식민지 체제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기에 이르러 그것이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그런데 주체는 자기 자신에게 낯선 것을 추방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자 하지만, 바로 그 추방과 거부 수행 과정 속에서 언제나 모호한 ‘나’의 경계가 창출된다. 주체가 혐오하고 거부하며 폭력적으로 배제한 것들은 추방되지만 결코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주체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모호한 자아의 경계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것이다.<sup>46)</sup>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주체화의 필연

적인 과정으로 제시한 이와 같은 아브젝시옹(abjection)을 전시총동원 체제가 일본(인, 문학)과 조선(인, 문학)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선(인, 문학)은 아브젝트(object)들로 기능한다. 제국 일본(인, 문학)은 주체로서 자기를 구축하기 위해 낯선 것으로서 조선(인, 문학)을 추방하거나 거부해야 하지만, 제국-식민지 체제는 조선(인)을 삭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제국의 주위에 식민지의 흔적들을 산포시킨다. 그런 점에서 아브젝트로서의 식민지 조선, 조선인, 조선문학은 언제나 제국의 경계를 뒤흔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전시총동원 체제는 식민지 조선인도 제국 일본의 신민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제시하면서 아브젝트들로 하여금 주체의 경계를 위협하는 힘을 동시에 준 셈이다.

전쟁으로 촉발된 비상시는 제국-식민지 체제를 유지·존속해왔던 차별적 구조를 철폐하고 내지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이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선일체의 이념을 통해 아브젝트들로서의 식민지 조선(인, 문학)에게 거부되거나 배제된 상태가 아닌, 포섭되거나 통합된 상태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런가 하면 천황의 적자로서 전쟁에 나가 죽어야 할 책무를 부과 받았을 때, 이 아브젝트들은 기꺼이 그 책무를 받아들여 제국의 식민지인으로서 내쫓긴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닌 신민(=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앞서 살펴봤다시피 그때의 권리는 오직 죽은 자에게만 부여된 것이었지만, 식민지 조선(인, 문학)이라는 아브젝트들을 내문 주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특권적 위치가 유동적인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협이 되었다. 다시 말해 전시총동원 체제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인간, 지역, 문화를 단일하고 균질적

46) 이에 대해서는 Julia Kristeva, translated by Leon s. Roudiez, *Power of Horror : An Essay on Abje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참고.



인 것으로 통합하여 전쟁 수행에 동원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차별적 구조의 재생산은 단절될 위협에 노출되고, 나아가 제국-식민지 체제의 질서와 문법 자체가 교란될 위협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주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朝鮮人は 이제는 決코 植民地人이 아니다. 弱小民族도 아니다. 敗戰國民도 아니다. 威勢가 隆隆한 大日本帝國의 臣民이다. 이것은 決코 虛張聲勢가 아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제부터는 우리 自身の 力量 如何로는 日本帝國의 모든 事業과 모든 榮光에 參與할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냐. 느저도 三十年 後의 朝鮮人의 子孫은 朝鮮人이라는 悲哀를 맞보지 아니 할 것이요 內地人의 子孫인 日本人과 完全히 平等되고 完全히 融合한 그 야말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同胞가 되어서 榮光을 享受할 것이다.<sup>47)</sup>

이광수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조선인은 천황의 적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개조해야 하고, 그 개조의 핵심에 제국의 운명을 짊어진 국민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변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 역시 『법화경』 행자로 자처하면서 종교적 차원의 구원을 제국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건설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구원으로 치환<sup>48)</sup>하여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시총동원 체제에 조용한 문예동원의 다채로운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는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모든 사업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식민지인도, 약소민족도, 패전국민도 아니라고 강변한다. 나아가

47) 이광수, 『황민화와 조선문학』,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앞의 책, 77면. 초출은 『매일신보』, 1940. 7. 6.

48) 이에 대해서는 정선태, 『어느 법화경 행자의 꿈—일제 말기 춘원 이광수의 글쓰기에 나타난 개인과 국가』, 『춘원연구학보』 제3호, 2010, 71-94면 참고.

30년 뒤에는 제국 일본인과 식민지 조선인의 구분이 사라져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완전히 평등되고 완전히 융합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친다. 이러한 그의 인식과 전망, 아니 식민지인으로서의 욕망을 전시총동원 체제의 질서와 문법을 오인한 데서 온 망상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이광수라는 식민지 문학자로 하여금 그러한 욕망을 발현하고 강화시킨 것이 제국-식민지 체제의 질서와 문법, 특히 내선일체의 이념을 구현하고, 제국의 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전시총동원 체제에 있다는 점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시총동원 체제는 적어도 식민지 조선인 문학자 이광수에게는 식민지인이라는 차별적 위상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탈출구였던 셈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이광수의 욕망이 제국-식민지 체제 자체의 붕괴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데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는 조선인을 규정해왔던 식민지인, 약소민족, 패전국민이라는 술어의 자리에 ‘대일본제국의 신민’을 대체하는 것을 통해 식민지인으로서의 굴레를 벗어난다. 나아가 내지인(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이 무화될 것이라며 민족적 차이가 없는 ‘동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를 제국 일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국-식민지 체제가 특권화한 주체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든 타자의 위치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분이 무화되는 순간 제국과 식민지의 경계는 사라지고, 제국-식민지 체제는 붕괴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인이 제국 일본의 충직한 신민이 되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일본인 자체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논리를 발생시킨다. 식민지 조선인이 조선인인 채로 전쟁에 동원되어서도 안 되고, 동원을 통해 일본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이중의 딜레마—그래서 식민지 조선인은 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 호명된 것이지만—에 제국 일본/인이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전시총동원 체제가 촉발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식민지 말 전시총동원 체제 하 이광수의 소설에 나타난 조선인들이 누구였는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내선일체의 이념을 서사화했던 이광수의 소설 속 조선인들은 천황의 적자이자 황국의 신민이 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에 가까운 조선인들이었다. 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하위의 열등한 자질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보나 나은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한 인간형에 식민지 조선인이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넘어 오히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역설하는 전략적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인보다 우월한 조선인은 일본인에게는 위협의 대상이 된다. 제국/식민지의 위계화된 구도 속에서 지배/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중의 하나가 인종적·문화적 우월성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총동원 체제가 전쟁 수행의 책임자가 조선인이라는 것은 제국-식민지 체제 내 주체의 자리를 독점하려는 일본인에게는 우월성의 상실로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내선일체의 이념 속 일본인과 다르지 않은 조선인, 일본인을 넘어선 조선인은 부인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광수의 의도와 달리, 그의 소설에 나타난 조선인들의 행위와 욕망은 전시총동원 체제의 질서와 문법이 가속화시킨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황민화 프로젝트를 통해 결코 인간 개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인보다 우월한 조선인이 내선일체의 이념을 체화해 전쟁을 수행하는 천황의 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말 조선문학은 전시총동원 체제의 실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기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실정성을 와해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예동원의 일환으로 제국의 식민지 통치 이념을 서사화하고, 그를 통해 조선인

들의 황민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달성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문학을 제국-식민지 체제에 협력하거나 저항하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지엽적일 뿐이다. 어쩌면 쉽게 잊고 있었지만, 식민지 문학이 제국적 질서와 문법을 되비추는 거울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야만 식민지 문학(이라는 관점/방법론)의 어떤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國民文學』, 『綠旗』, 『文章』, 『新時代』

김윤식 편역, 『이광수의 일어 창작 및 산문선』, 도서출판 역락, 2007.

모던일본사 지음, 윤소영·홍선영·김희정·박미경 옮김, 『일본잡지 모던일본과 조선 1939 : 완역 <모던일본> 조선판 1939년』, 도서출판 어문학사, 2007.

이경훈 편역, 『이광수 친일소설 발굴집 :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 평민사, 1995.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1995.

人文社編輯部 編, 『大東亞戰爭と半島』, 人文社, 1942.

2. 단행본

김재용, 『협력과 저항—식민지 말 사회와 문학』, 소명출판, 2004.

김재용, 『풍화와 기억—일제 말 친일 협력 문학의 재해석』, 소명출판, 2016.

송민호, 『일제 말 암흑기문학연구』, 새문사, 1991.

오태영, 『오이디푸스의 눈 : 식민지 조선문학과 동아시아의 지리적 상상』, 소명출판, 2016.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도서출판 역락, 2006.

이경훈, 『이광수의 친일문학 연구』, 태학사, 1998.

이정신, 『동화와 배제—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역사비평사, 2017.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차승기,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식민지 조선 담론장에서의 전통·세계·주체』, 푸른역사, 2009.

차승기, 『비상시의 문/법—식민지/제국 체제의 삶, 문학, 정치』, 그린비, 2016.

황중연, 『당아를 위한 비평』, 문학동네, 2012.

황호덕, 『벌레와 제국—식민지말 문학의 언어, 생명정치, 테크놀로지』, 새물결출판사, 2011.

- 松本武祝, 『戰時期朝鮮における朝鮮人地方行政職員の「對日協力」』,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7 : 支配と暴力』, 岩波書店, 2006.
- 朴春日, 『増補近代日本文學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1985.
- 趙寛子, 『脱植民地と知の制度—朝鮮半島における抵抗・動員・翼賛』, 『岩波講座 아시아・太平洋戦争 3 : 動員・抵抗・翼賛』, 岩波書店, 2006.
- 和田春樹 外 編, 『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 第6卷: 아시아太平洋戦争と「大東亞共榮圈」1935-1945年』, 岩波書店, 2011.
- Julia Kristeva, translated by Leon s. Roudiez, *Power of Horror : An Essay on Abje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2.

### 3. 논문

- 배개화, 「참정권 획득과 감성 정치-일제 말 이광수의 친일 협력의 목적과 방법」,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학회, 2016.
- 오태영, 「제국-식민지 체제의 구멍을 응시하는 눈—차승기의 『비상시의 문법』에 기대어」, 『상허학보』 제49집, 상허학회, 2017.
- 이형식, 「태평양전쟁시기 제국일본의 군신만들기-『매일신보』의 조선인특공대(神鷲) 보도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37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2.
- 정선태, 「어느 범법경 행자의 꿈—일제 말기 춘원 이광수의 글쓰기에 나타난 개인과 국가」, 『춘원연구학보』 제3호, 2010.
- 최주한, 「친일협력 시기 이광수의 불교적 사유의 구조와 의미」, 『어문연구』 제41권 제2호, 한국어문교육연구원, 2013.
- 최주한, 「중일전쟁기 이광수의 황민화론이 놓인 세 위치」, 『서강인문논총』 제47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Abstract>

Th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and Joseon Literature in the Lat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 on Lee, Kwang-su’s Literature  
and Discourse—

Oh, Tae-Young

The conditions of human life were reorganized by th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in the late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Korean literature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s ‘colonial literature’ rather than modern literature=national literature. In an emergency triggered by war, the discriminatory structure that has maintained and sustained the empire-colonial regime was abolished. And suggested that the imperial Japanese and colonial Joseon should be unified. Through this, they opened the way to ask for the condition of being captured, not excluded by the colonial Joseons as the objects. And when they were imposed an obligation to go to war and die, these objects were willing to accept it. Through this, it became possible to demand the right as a nation instead of staying in the position of the exiled as a colonizer. Lee, Kwang-su actively cooperated with the regime and tried to escape the discriminatory status of the colonial by building up these narratives.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mperial

Japanese, it is deprived of the authority of the empire-colonial regime. Whe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Japanese and the Joseon is nullified, the boundary between the empire and the colonies disappears and the empire-colonial regime collapses. So the Joseon were given only the right to go to war and die. It is worth noting that colonial literature functions as a mirror reflecting the order and grammar of the empire-colonial regime. Considering this, we can not but consider the positivity of the system that has been through ‘colonial Joseon’.

Key words: empire-colonial regime, wartim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Joseon literature, national literature, colonial literature, Lee, Kwang-su, abjection

투 고 일 : 2017년 8월 5일      심 사 일 : 2017년 7월 20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